

새 대통령에 바란다

국민들은 제 19대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등을 간절히 바랐다. 특히, 대통령 탄핵사태로 불거진 국가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삶을 위로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염원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서민들이 살기좋은 새 세상 열어주세요”

“서민들 고달픈 삶 위로해 주길”

보험대리점 박상용씨



“실물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번 대통령은 서민들이 좀더 잘 살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나라로 이끌었으면 한다.”

광주 광산구 신장동에서 보험영업 10년째 하고 있는 박상용씨(40)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경제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다. 박씨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줘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민의 신뢰 얻어야”

여행사대표 신영훈씨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러진 대통령 선거인 만큼 청렴하고 소신 있는 국정운영을 기대합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서 5년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훈씨(40)는 “새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하다”며 “새 정부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세력을 엄벌하고, 사회정의의 바로 세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청년 창업 대책 필요”

나니컴퍼니 서난희 대표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서난희 나니컴퍼니 대표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정부 사업은 많지만 계획서 작성 등 부수적인 요건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받는다”며 “이렇다 보니 정작 사업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난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리 대출이나 인건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국심으로 나라 이끌어 주길”

6·25 학도병 참전 손인택 응



“이제는 국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소망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손인택 할아버지(88)는 “최근 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다”며 “우리 국민들은 6.25를 비롯해 나라가 어려울때 항상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손 할아버지는 이어 “전임 대통령의 어설픈 국정운영이 국민들을 실망에 빠트렸다”며 “차기 대통령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 지키는 소방관 배려해 주길”

빛가람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김재홍



“전국 소방관들은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빛가람119안전센터 소방위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소방관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평균 수명보다 20년이 짧은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청 부활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영원한 국가공무원 전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업과 교육 걱정 없애 주세요”

조선대 재학생 한수민씨



“취업,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대 철학과 4학년 재학중인 한수민씨(23)는 이번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춥바 민심속에 전 권력의 불명예 퇴진으로 돌아선 정권이 만큼 젊은이들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털어달라는 의미다.

한씨는 “철학과는 인문학의 기초 학문이지만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취업을 위해 다른 제 3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장성	13~22	목포	14~19
담양	12~21	여수	14~22
화순	12~21	관동	14~22
영광	13~19	장흥	13~22
함평	12~19	해남	12~20
무안	13~19	고흥	13~22
영암	12~21	보성	13~21
진도	14~19		
신안	14~18		

일출 05:33 일몰 19:25
월출 18:46 월몰 05:21

목포	만조 01:59 14:04 간조 07:12 19:20	여수	만조 08:46 21:17 간조 02:43 14:44
----	----------------------------------	----	----------------------------------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새벽까지 5~10mm 비

갠 뒤 대체로 맑은 날씨

광주·전남은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갠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10일 새벽까지 5~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내륙에는 오전한때 짙은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겠다.

/유형동 기자

강원도 산불 나흘만에 완전 진화

강원 강릉과 삼척 산불이 발생 나흘만인 9일 드디어 완전히 꺼졌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삼척시도 계을 점리 인근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릉 산불도 이날 오전 6시 34분을 기해 완전히 진화했다.

경북 상주 산불은 전날 오후 4시 33분 진화를 완료했다.

세 곳의 산불피해면적은 340ha다. 삼척 270ha, 강릉 57ha, 상주 13ha다.

죽주장 면적 476배이고, 여의도 면적(290ha)보다 50ha나 큰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강릉에서는 주택 33채가 불에 타 이재면 78명이 발생했다. 삼척도 주택 4채가 소실됐다.

산림 당국은 장장 나흘간 이어진 산불 진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진화 능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19대 대선 13건 수사

흑색선전·여론조작 등 엄단 방침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9일 현재 13건에 17명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2건(1명 기소·3명 불기소)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11건·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고발은 7명, 정당 고소·고발은 2명, 일반인 고소·고발은 3명이다. 경찰에서는 인지 4명, 정당 고소·고발 1명이다.

내사 중인 사건은 총 10건·11명(검찰 2명·경찰 9명)이다.

광주지검은 투표 전·후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흑색선전(가짜뉴스 등)과 금품선전(후보 단일화 금전보상 등), 여론조작(허위 응답 등)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 엄단키로 했다. /고광민 기자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 담보

지난 5일 이후 추가 발굴 소식 없어

지난 5일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조각이 발견된 이후 추가 수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체가 침몰했던 해저 주변(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 철제펜스)을 40개 일반구역, 2개 특별구역(세월호 선미 객실 부분과 맞닿아 있는 해저면)으

로 나눠 집중 수색하곤 있지만 추가 발굴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9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잠수사 2명이 진도 앞바다에 투입되면서 수중수색이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40개 일반 구역 가운데 30곳 수색을 마쳤다.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구역 수색에 들어갔다.

잠수사들은 일일이 손과 모종삽을 동원해 진흙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엔 특별구역 내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34cm 크기 유골 1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수습자들의 유해가 밖으로 유실될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수색에선 여전히 담보상대에 머무르고 있다. 수중수색팀은 추가 유해 발굴을 위해 일반 구역 수색은 종 방향, 특별 구역 수색은 종, 횡 교차로 진행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원해 진흙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엔 특별구역 내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34cm 크기 유골 1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수습자들의 유해가 밖으로 유실될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수색에선 여전히 담보상대에 머무르고 있다. 수중수색팀은 추가 유해 발굴을 위해 일반 구역 수색은 종 방향, 특별 구역 수색은 종, 횡 교차로 진행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